

증권학회 · 자본시장연구원  
공동 정책 심포지엄

#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구조 효율화 방안

2025. 6. 17

남 재우 (자본시장연구원)

# 연금자산의 축적과 자본시장 동반성장

## ❖ 연금자산 2천조 원 시대 : 국민연금(1,227조원) + 퇴직연금(432조원) + 개인연금(370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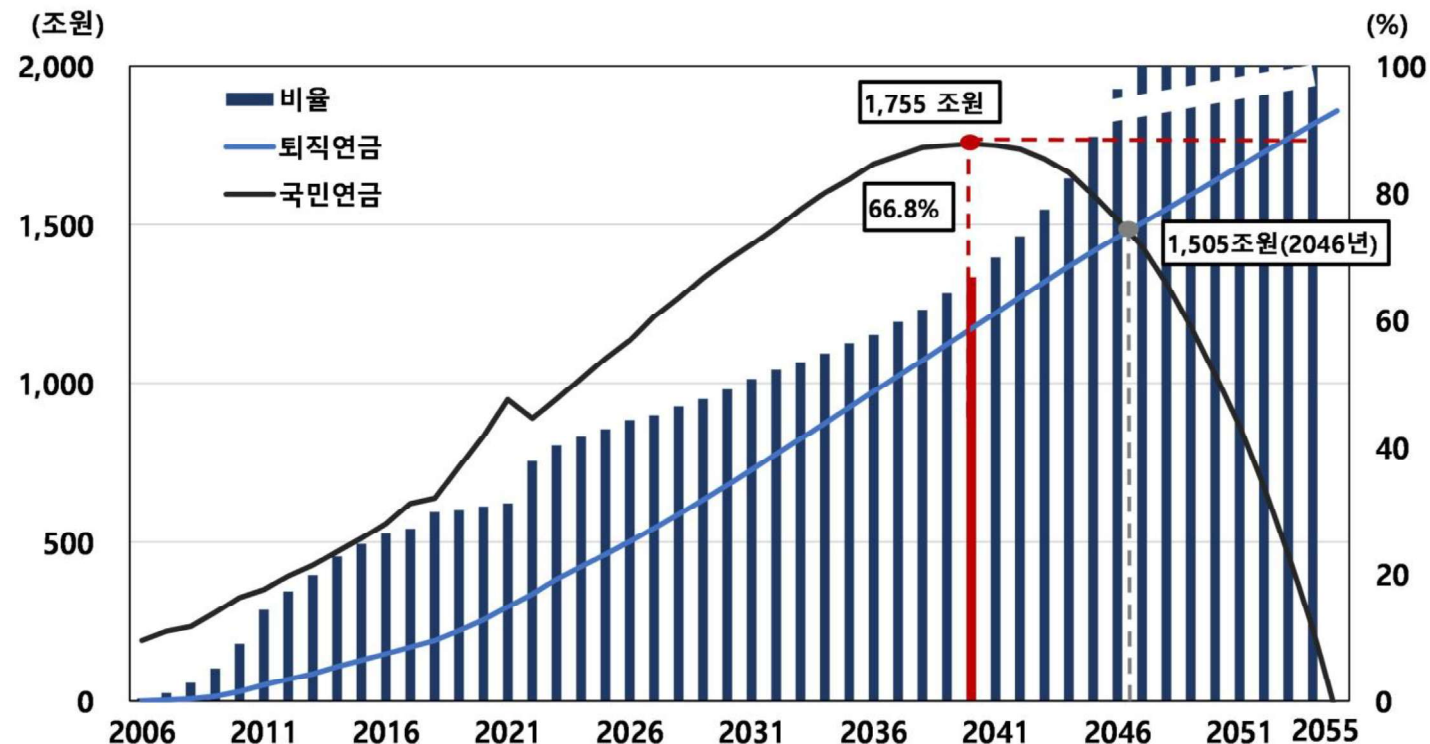
- [사적연금제도 확대] 부과방식(PAYG)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: 적립 기금 없는 세대 간 부양의 구조적 어려움
  - 국민연금기금 5차 재정계산(2023) : 2040년 최대적립 1,755조원 → 2055년 기금소진 (부분적립방식에서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)
  - 사적연금의 공적연금 대체 또는 보완 → 공적으로 강제(또는 관리)되는 사적연금제도 확대의 배경
- [상호보완 관계] 다층연금체계하에서 전체 연금제도의 구조개혁 → 연금제도[소득대체율] & 기금운용[시장 영향]
  - 1,000조원을 상회하나 급격한 기금소진을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이에 따른 자본시장의 부정적 영향 (Market melting down)
  - 현재 400조원 규모로 향후 국민연금기금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제도와 시장 관점에서의 상호보완적 역할
- [Frame]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관점 : 공적연금 vs. 사적연금 → 강제적 필수연금제도 vs. 자발적 선택연금제도
  - 2층 필수사적연금 : DB, DC, 퇴직 IRP → 법에 의한 강제 / 1층 필수공적연금(국민연금), 0층 사회안전망(기초연금, 사회보험, 공적부조)
  - 3층 선택사적연금 : 적립 IRP, 개인연금, 주택(농지)연금, 재형저축수단(ISA 등) → 세제혜택을 통한 자발적 유인기제
  - ✓ 강제든 유인이든 모든 정책 방안(수단)은 적정 수준의 운용수익을 달성이 가능한 보편적 운용 수단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
- [퇴직연금제도] 적립금의 운용 효율화(수익률 제고)를 위한 정책 수단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조성이 관건
  - 디폴트옵션, 집합운용DC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환경 → 기금형 지배구조

#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 추계

## ❖ 국민연금 감소기(2040~2055) 국내 자본시장 충격(melting down)을 퇴직연금이 완화할 수 있을까?

- **현행 운용체계 및 자산구성 지속(수익률 2.1%)** : [국민연금(2040년) 대비 주식시장 영향력] 7.5%(2040) → 12.0%(2055)
- **제도 개편과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(수익률 4.5%)** : [국민연금 대비 영향력] 118%(2040) → 289%(2055)

퇴직연금 적립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추계



주) 퇴직연금 적립금 추계는 기본가정에 따른 전망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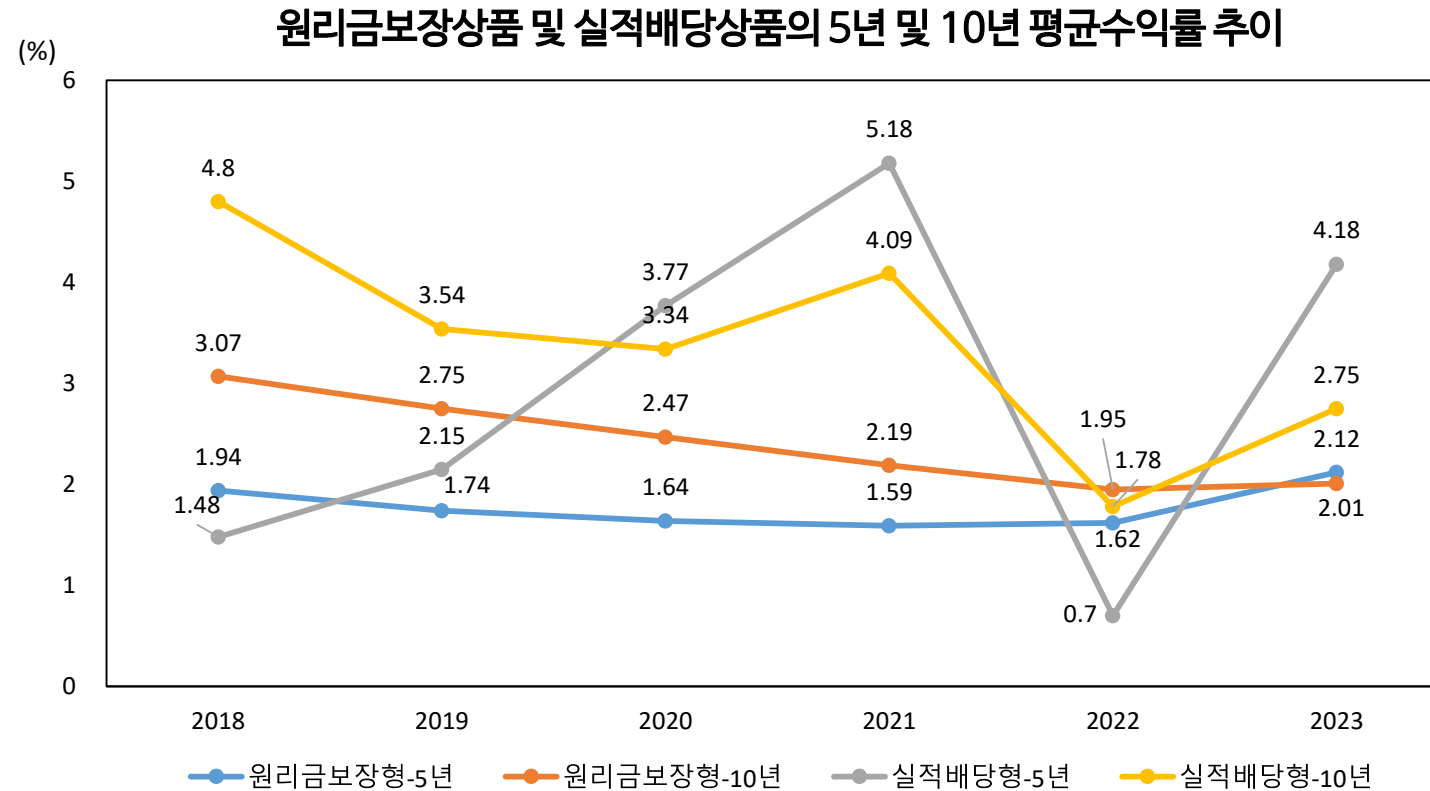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민연금기금 5차 재정계산(2023)

# It's the Performance, stupid

- ❖ 연금자산의 적극적 운용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(pension scheme) 발전의 근본 기제
  - 공적연금 :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의 역할 강화
  - 필수 퇴직연금 : 제도 일원화, 중도 해지, 연금화 등의 법적 강제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근본적 완화 기제
  - 선택 개인연금(IRP 포함) : 세제혜택의 계좌 환류와 함께 수익률 제고는 자발적 제도 참여의 실질적 유인 기제
- ❖ **[분산투자]** 수익률 제고는 자산배분의 문제 →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투자포트폴리오
  - 실질 가치 유지 측면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의 구조적 취약성과 장기투자에서 자산배분(asset allocation)의 중요성
  - 장기투자의 투자시계(investment horizon)에 상응하는 위험프리미엄(risk premium) 추구로 장기수익률 제고
  - 자산별 및 지역별로 위험의 분산을 담보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포트폴리오(global investment portfolio) 구축
- ❖ **[간접투자]** 연금자산의 운용 수단 → 외부 전문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탁운용(outsourcing)
  - 연금자산 운용에 수반되는 투자의사결정의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포괄적 간접운용 수단 확대
  - [일임투자] DB 적립금에 대한 일임투자 허용과 DC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일임투자자문서비스(로보어드바이저) 확대
  - [Default option] Opt-out 방식의 디폴트옵션제도 재도입과 현행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개편 필요성
    - 상시적 리밸런싱(rebalancing) 기제가 내재된 자산배분형 퇴직연금펀드(TDF, BF) 중심의 디폴트옵션 적격상품(QDIA) 구성
  - [집합운용DC] 개인이 운용하는 DC 적립금의 집합(pooling)을 통한 전문가에 의한 연금자산 운용
    - 제한된 유형의 특수 기금형에서 다양한 유형이 경쟁하는 일반 기금형 지배구조로 진화

#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수익률(5년, 10년)의 추세적 변화

- ❖ 2023년 말 기준 10년 평균 장기수익률 전체 2.07%, 원리금보장 2.01%, 실적배당2.75%
  - 원리금보장상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금리 변화를 반영하여 3.07%(2018년) → 2.01%(2023년)로 추세적 하락
  - 실적배당상품의 10년 평균 수익률 역시 채권 위주의 상품 구성으로 4.80%(2018년) → 2.75%(2023년)로 추세적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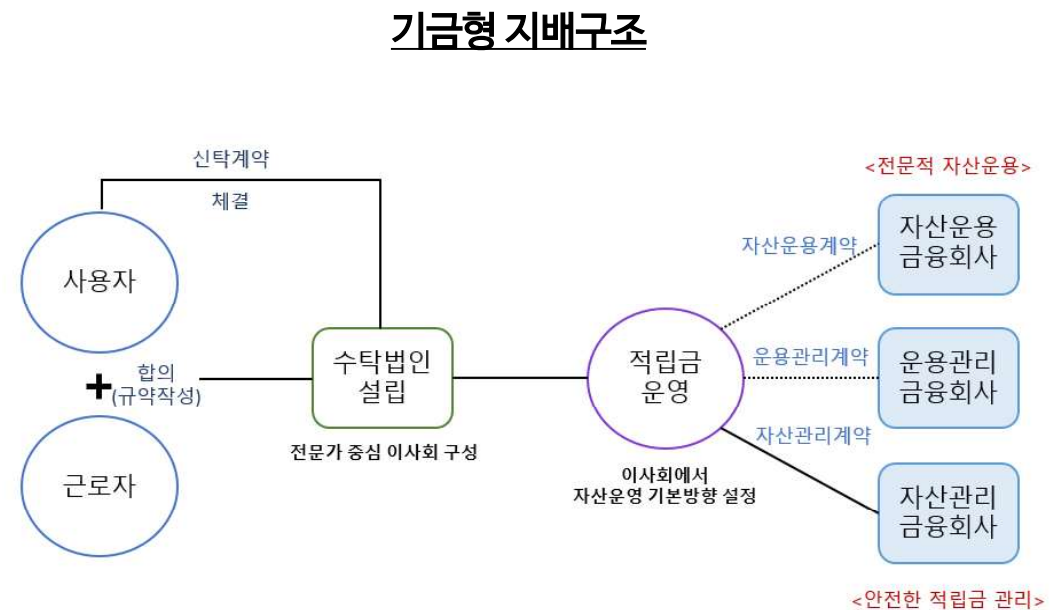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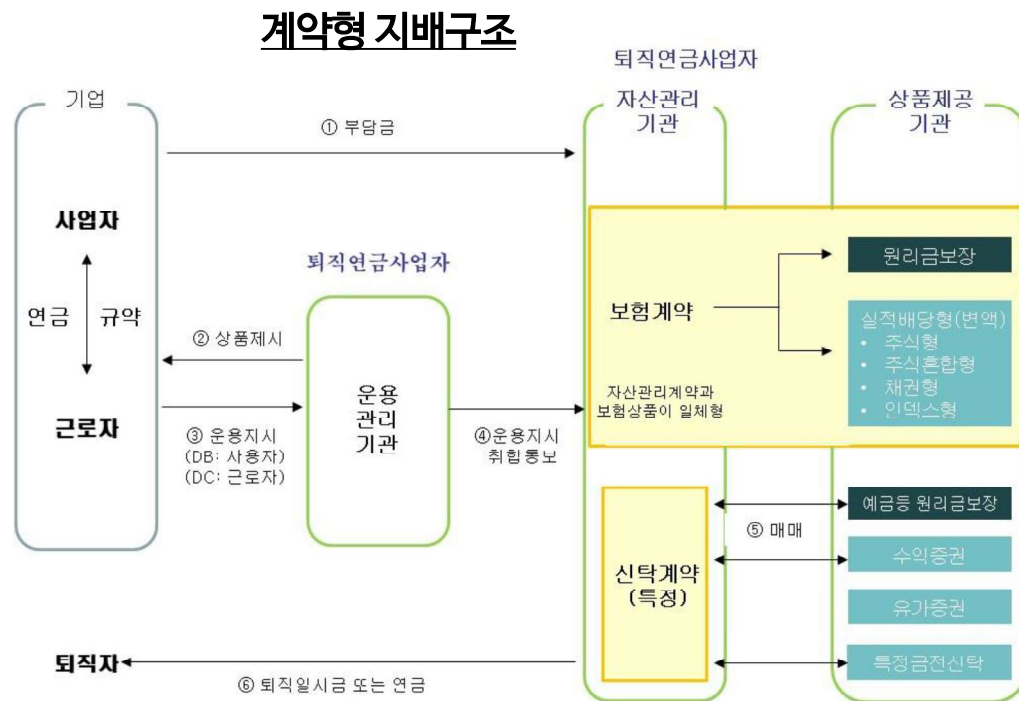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고용노동부

# 퇴직연금제도 지배구조 (Pension Scheme Governance)

## ❖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: 강제적 제도일원화 (퇴직금제도 → 퇴직연금제도) 실행의 선결 조건

- (DC 중심의 기금형 퇴직연금) DC형만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강제적 제도 전환은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과 동일 의미
-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불리함 완화 및 효율적 운용수단의 보편적 제공은 연금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기본 책무



자료 : 고용노동부

# (DB)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DB 적립금의 운용 효율화 가능성

## ❖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(IPS) 작성 의무화

-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도입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
-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은 시행령에 위임
  - 근로자 대표 참여를 기본으로 최소적립률 미충족의 경우 운용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필수
- 미국, 유럽 등의 기업연금에서는 적립금운영위원회 구성이 일반화
  - 미국 500인 이상, 일본 300인 이상 사업장 의무화

## ❖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할 의무

- 적립금운용계획서(investment Policy Statement)
  - : 자산운용체계, 목표수익률, 허용위험한도, 자산배분, 성과평가 등 포괄적 적립금 운용 지침
- 연 1회 이상 적립금운용계획서 리뷰 의무화

## ❖ 최소적립의무 강화 조치 (과징금 확대 및 적극적 실행) 와의 연계 시너지

- 일임 위탁운용 규제 완화를 통한 OCIO(Outsourced CIO) 운용 적극적 확대
- DB 적립금 운용에 있어 계약형 지배구조하에서 기금형 도입과 유사한 제도 효과 기대

#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노력 (2018년 정부입법안)

## ❖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

- 제도 도입 목적 :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촉진, 퇴직연금 관리 및 운용의 전문성 강화, 연합형 퇴직연금 기금 설립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,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구도 강화

2018년 정부입법 근퇴법 개정안 경과

| 일정             |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‘14년 8월        | 정부합동 ‘퇴직연금 활성화 방안’ 발표 (기금형 도입)    |
| ‘14년 8월~’16년7월 | 기금형 도입 방안 검토 (연구용역, 노사관계 의견 수렴 등) |
| ‘16년 8월~10월    | 개정안 마련,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             |
| ‘16년 8월~10월    | 규제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‘16년 8월~10월    | 법제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‘18.4.10       | 국무회의 통과 (이후 회기 내 미처리로 자동 폐기됨)     |

2018년 정부입법 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

| 구분             | 내용   |
|----------------|--|
| 제도 도입 의사결정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*의 동의를 받아(노사합의) 계약형과 기금형 중 하나를 선택</li> <li>•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, 과반수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</li> </ul>   |
| 수탁법인 설립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(자산운용 등 업무 범위에 따라 설립허가 요건 차등 적용)</li> <li>• 둘 이상의 사용자가 연합해 하나의 수탁법인에 연금자산을 신탁하는 연합형 기금형 허용→기금 대형화 통한 비용절감</li> </ul>  |
|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가 및 노사 추천자로 구성, 연금제도 운영의 주요사항 결정</li> <li>• 노사추천자는 같은 수로 구성, 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해 전문적 기금운영 기반 마련</li> </ul>  |
| 수탁법인에 기금의 신탁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용자와 수탁법인 간 계약으로 신탁 설정</li> <li>•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고, 수탁법인은 수익자(근로자)를 위해 신탁(연금) 자산을 관리·운용할 의무 부담</li> <li>• 사용장, 수탁법인 도산 시에도 적립금은 근로자에게만 지급</li> </ul>  |
| 수탁법인의 연금제도 운영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·사로부터 연금자산운용 및 급여지급 등 퇴직연금 운영 업무 수탁</li> <li>• 수탁법인은 연금자산을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용 가능</li> <li>• 자산운용을 위탁법인 금융회사는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지침 및 전략(적립금 운용계획서)에 따라 운용</li> <li>• 다만, 횡령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접 취급금지(금융회사에 위탁 강제)</li> </ul>   |
| 수탁법인 책임 및 관리감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탁법인: 선관주의의무, 충실의무,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관리감독 체계</li> <li>• 고용노동부: 기금형 전반에 대한 관리·감독</li> <li>• 사업자(금융회사)는 금융위·금감원에서 관리·감독 수행</li> <li>• 내부감사: 수탁법인의 적립금 운용의 건전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 후, 결과를 노·사 및 노동부에 보고</li> <li>• 외부감사인(회계감사인, 독립계리업자 등): 적립금 운용의 건전성,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감사 및 검증</li> </ul> |



# [수탁법인] 집합운용DC vs. CDC

- ❖ 집합운용DC(Collectively Invested DC) 와 CDC(Collective DC)의 개념 이해
  - 집합운용DC : 개인의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 관점에서의 DC 진화 (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)
  - CDC : DB 급여(annuity) 지급에 있어 사용자에게 집중된 위험을 구성원 간의 연대를 통해 분담하기 위한 목적 (네덜란드 CDC제도)
  - 기금형 IDC : 수탁법인(기금)이 관리 및 운용하는 일반 DC형으로 디폴트옵션 개념으로 집합운용(호주 Superannuation & MySuper)

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퇴직연금 제도(scheme) 유형)

|                   | DC     | 집합운용DC | CDC      | DB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
| 기여금(contribution) | 확정     | 확정     | 확정       | 가변     |
| 급여(benefit)       | 없음     | 없음     | 목표 급여    | 확정 급여  |
| 급여 보장             | 없음     | 없음     | 제한된 보장   | 보장     |
| 자산 운용 방식          | 개인 운용  | 집합 운용  | 집합 운용    | 개별 운용  |
| 리스크 공유 방식         | 없음     | 없음     | 구성원 간 공유 | 사용자 부담 |
| 수익 귀속 방식          | 개인별 귀속 | 개인별 귀속 | 집단 내 조정  | 사용자 귀속 |

주 : CDC 또는 DB scheme에서 급여(benefit)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(annuity)을 의미함

# [수탁법인] 기금형(Fund type) vs. 기관형(Institutional type)

## ❖ [기금형 지배구조]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(푸른씨앗)

- 30인 미만 영세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포함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
-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집합운용DC 방식으로 운용(OCIO 체계)

## ❖ [기관형 지배구조] 과학기술인퇴직연금제도

- 2023년말 현재 518개 기관, 34,925명 가입자, 3조 886억원 적립
- 종퇴기금 같은 집합운용DC가 아닌 일반 DC형 퇴직연금제도
- 연금 적립금의 92%가 원리금보장상품(예금)임에도 불구하고 5%대의 안정적인 장기수익률 기록
- 적정 수준의 위험프리미엄을 시현하는 실적배당상품 제공
-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금 상품은 공제회가 운용하는 일종의 확정금리형 투자 상품

## ❖ 기존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, 또는 기존 금융기관(신탁업자)을 활용하는 영리형 수탁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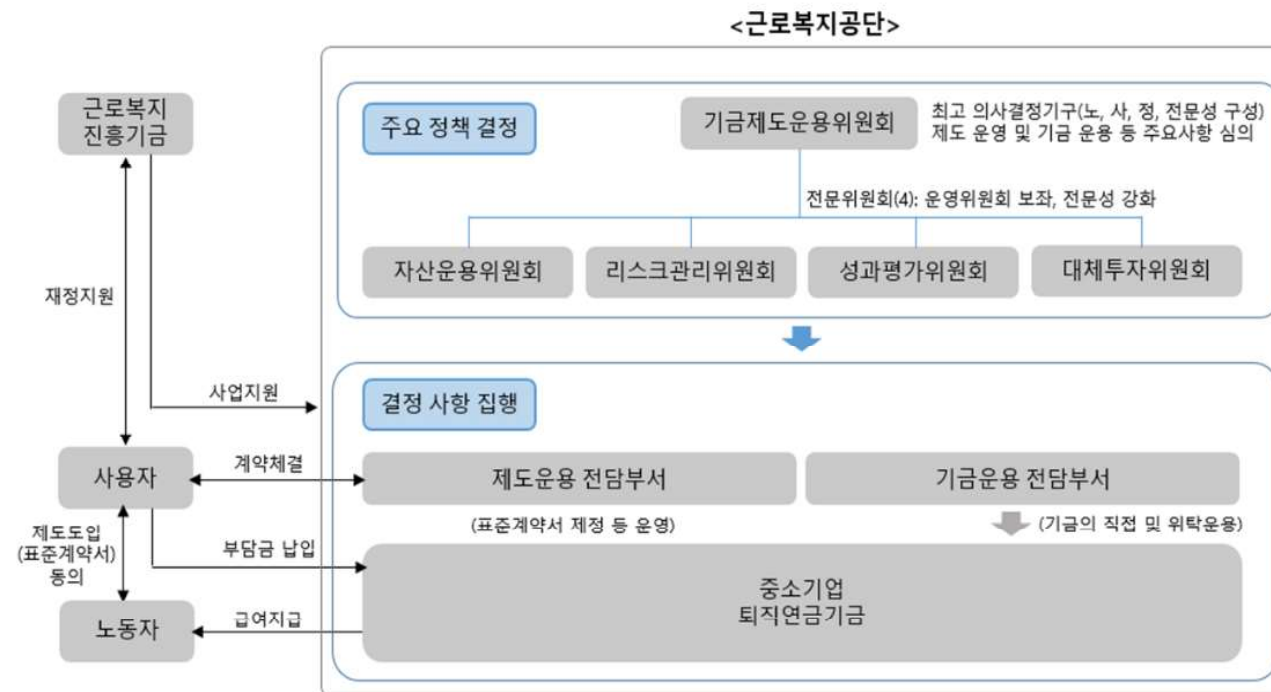
- 기존 퇴직연금사업자가 기금형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중소 규모 사업장을 회원으로 모집
- 영리형 수탁법인의 의미와 법인격 : 영리형 재단법인 vs. 주식회사 / 수익(수수료) vs. 이익 → 운용 경쟁의 기제
-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개별 사업장의 신탁 계정을 설치하는 방식 [기존 계약형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]

#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푸른씨앗)

## ❖ 근로복지공단이 수탁법인으로 기능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→ 집합운용DC

- 안호영의원안(2020. 7. 23) 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(2022. 4. 14 제도 개시)
- 한정애의원안(2020. 8. 24) - 일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

###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(푸른씨앗) 운영 구조



자료 : 고용노동부

# [호주 Superannuation] 수탁법인(기금)의 유형

- ❖ 호주 Superannuation은 영리형 및 비영리형의 다양한 유형을 갖는 기금 선택제의 IDC 제도
  - 규모의 경제(economy of scale)와 이로 인한 수익률 격차로 기금 대형화 및 과점화 경향
  - 산업형(연합형) 기금 확대 및 기업형(단일형) 기금 축소 → 운용규모(AUM)는 증가, 기금 개수는 축소
  - 공공형의 개념 확대 :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수탁법인
- ❖ 영국 Master Trust 참조 : NEST(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) 등

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기금 유형과 특징

| 유형                      | 특징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기업형<br>(Corporate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슈퍼애뉴에이션 원형으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영리 수탁법인 설립</li> <li>근로자 가입이 원칙이나 기금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도 가입 가능</li> </ul>           |
| 산업형<br>(Industry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정 산업의 기업군이 연합으로 비영리 수탁법인 설립</li> <li>산업형 기금의 대부분은 타 산업 분야의 근로자도 선택 가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| 공공형<br>(Public sector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 및 공공부문의 <u>공적기관</u>이 설립하는 비영리 수탁법인</li> <li>가입자가 공공부문을 떠난 이후에도 <u>계속적으로</u> 기여금 납입 가능</li> </ul> |
| 소매형<br>(Retail)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은행, 증권,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설립하는 영리 법인</li> <li>모든 근로자가 선택가능하며, 별도의 금융자문서비스 및 비용 부과</li> </ul>      |
| 자기관리형<br>(Self-managed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입자가 수탁자가 되어 기금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모든 책임을 짐</li> <li>주로 부유층이 가계 단위로 설립하며 최대 6인까지 참여 가능</li> </ul>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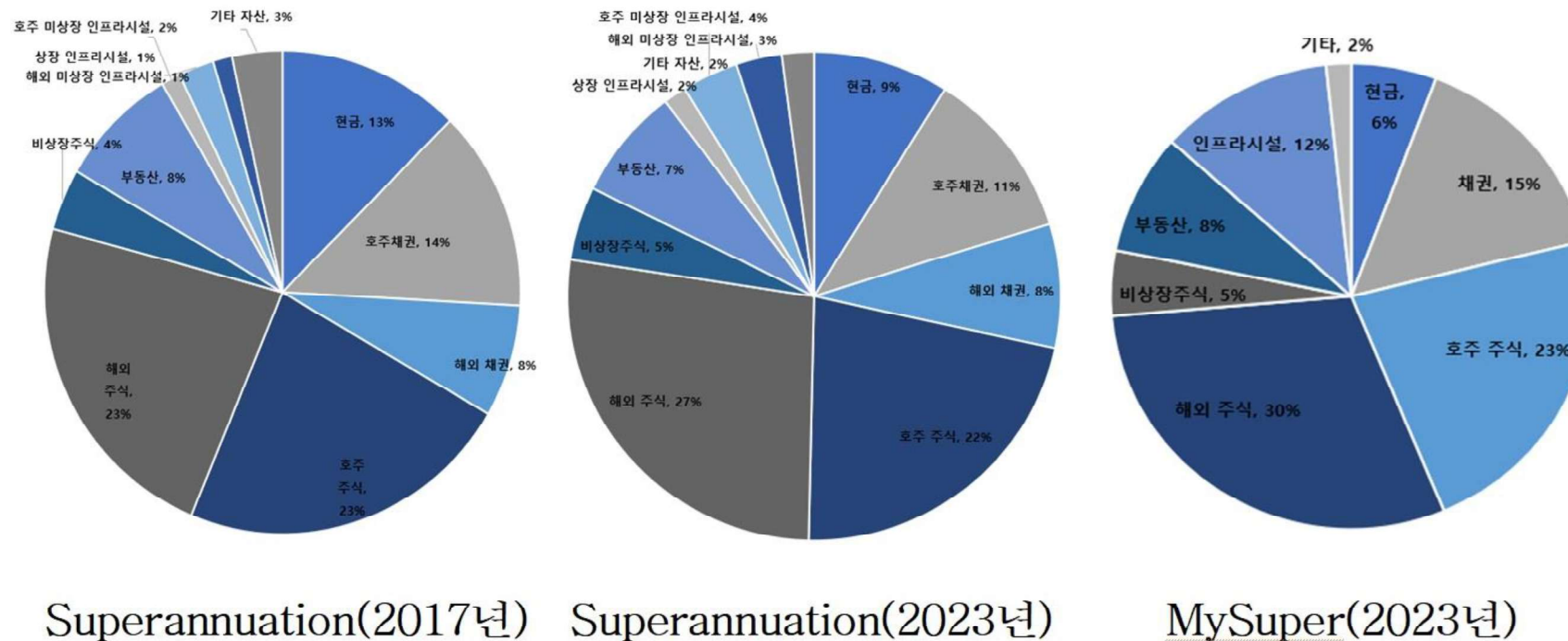
자료 : APRA, ATO

# [운용자금의 Pooling] 집합운용 DC vs. IDC의 디폴트옵션

## ❖ Superannuation Fund가 제공하는 디폴트옵션(MySuper) 자체가 일종의 집합운용DC 개념

- 슈퍼애뉴에이션의 자산배분 변화(2017년 → 2023년) :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 4:6 → 3:7, 대체투자 비중 19% → 23%
- 디폴트옵션의 공격적 투자 성향(2023년) :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 2:8, 대체투자 비중 25%

호주 퇴직연금 기금의 자산배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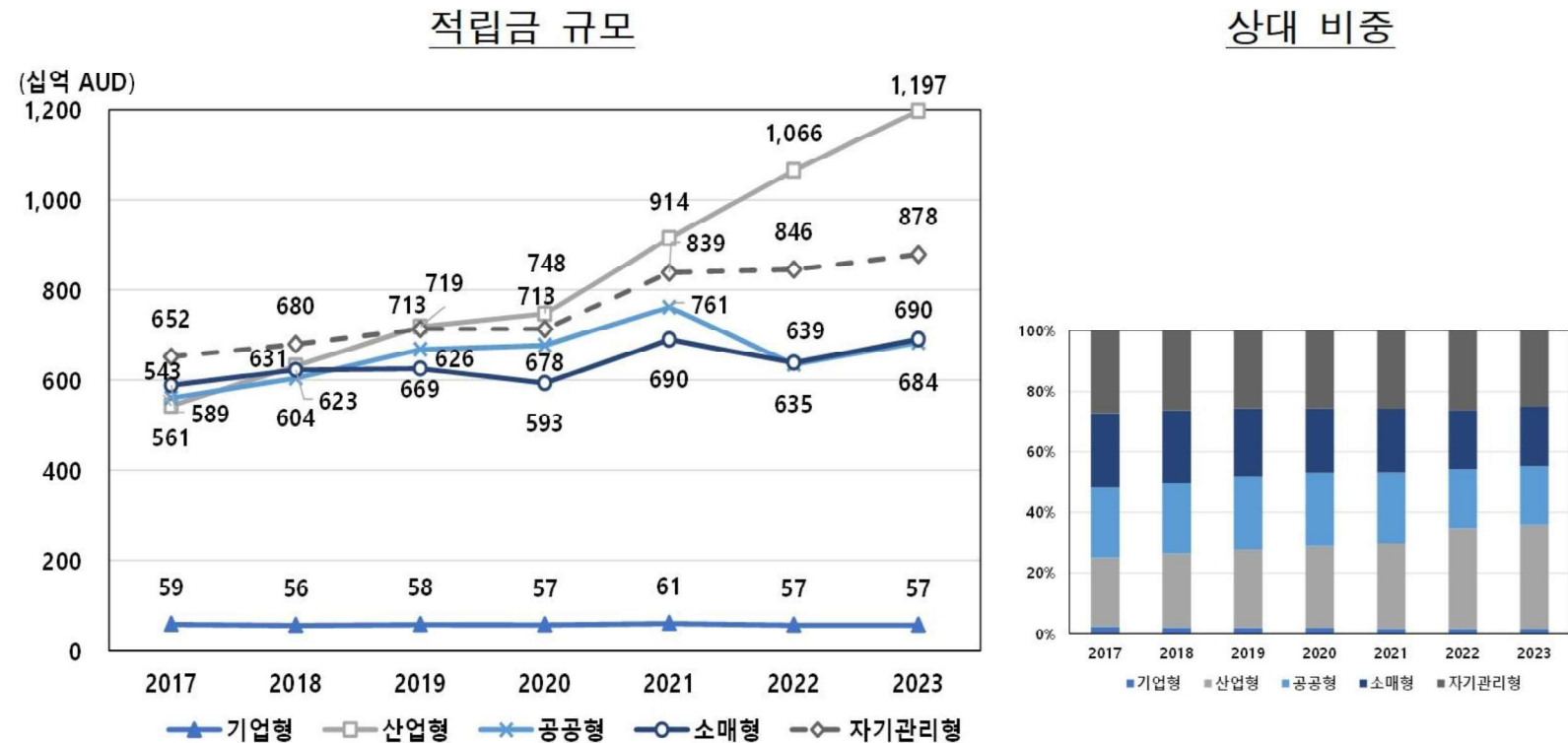


## 호주 Superannuation – 기금 유형 간 경쟁구도

## ❖ 기금 선택제하에서 기금 간 경쟁에 따른 대형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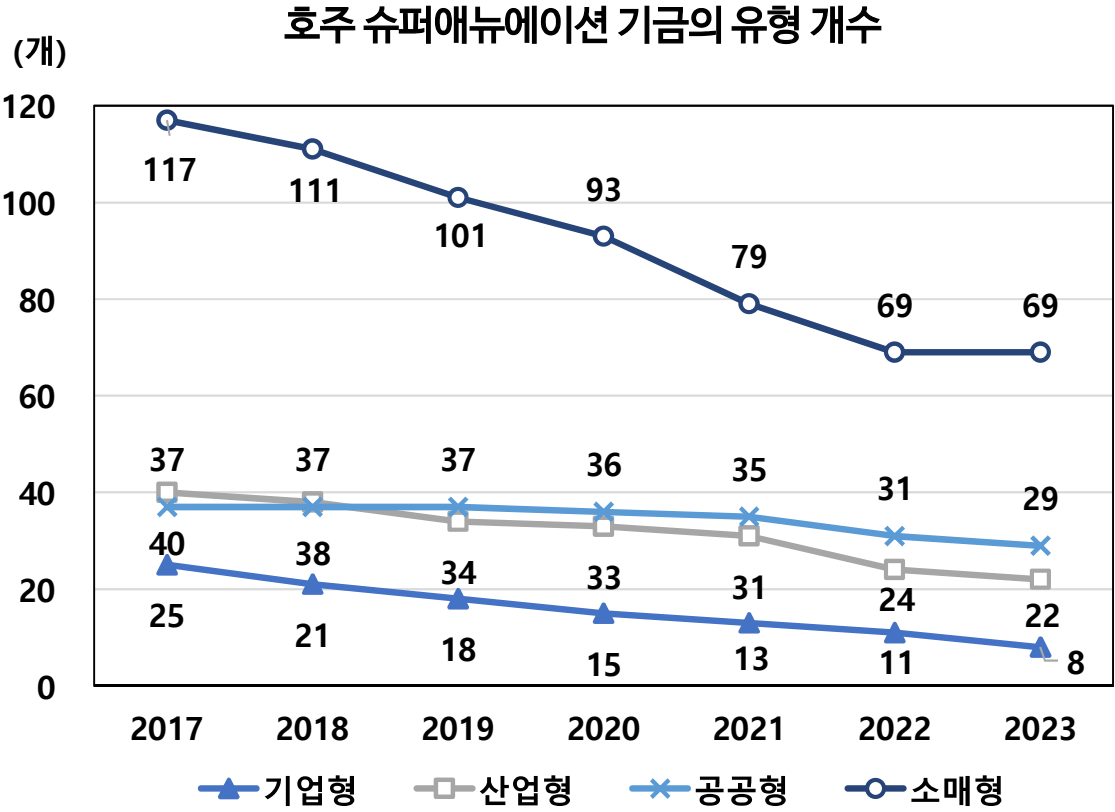
- ▶ 유형 경쟁 관계인 기업형의 축소와 산업형의 확대 기조
- ▶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형의 쇠퇴

##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기금 유형별 적립금 변화



# 호주 Superannuation – 기금 대형화

- ❖ 모든 유형에서 적립금 규모는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기금 개수는 지속적으로 감소(-42%)
  - 산업형(41%), 소매형(41%), 공공형(22%) 등 기금 간 경쟁이 활발할수록 기금 대형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남
  - 규모의 경제 vs. 규모의 비경제 → Superannuation Fund의 대형화 경향



# 호주 Superannuation – 운용규모와 장기수익률

## ❖ 운용규모가 커질수록 장기수익률(10년 평균)이 증가하는 경향

➤ 직접적 경쟁관계인 기업형과 산업형 수익률 격차 : 38bp(2017년) → 100bp(2023년)

유형별 기금 운용규모와 장기수익률

(단위: 백만 AUD, %)

| 구분  |         | 2017   | 2018   | 2019   | 2020   | 2021   | 2022   | 2023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기업형 | 기금당 순자산 | 2,273  | 2,579  | 3,127  | 3,715  | 4,503  | 5,016  | 6,826  |
|     | 10년 수익률 | 4.5%   | 5.8%   | 8.0%   | 7.0%   | 7.5%   | 7.3%   | 6.6%   |
| 산업형 | 기금당 순자산 | 13,030 | 15,921 | 20,297 | 21,562 | 28,142 | 42,548 | 52,662 |
|     | 10년 수익률 | 4.9%   | 6.5%   | 8.7%   | 7.7%   | 8.6%   | 8.1%   | 7.5%   |
| 공공형 | 기금당 순자산 | 14,907 | 16,045 | 17,621 | 18,406 | 21,269 | 19,703 | 22,719 |
|     | 10년 수익률 | 4.8%   | 6.3%   | 8.5%   | 7.5%   | 8.1%   | 7.5%   | 7.0%   |
| 소매형 | 기금당 순자산 | 5,000  | 5,576  | 6,159  | 6,340  | 8,613  | 9,216  | 9,951  |
|     | 10년 수익률 | 3.1%   | 4.9%   | 6.9%   | 5.8%   | 6.8%   | 6.2%   | 5.7%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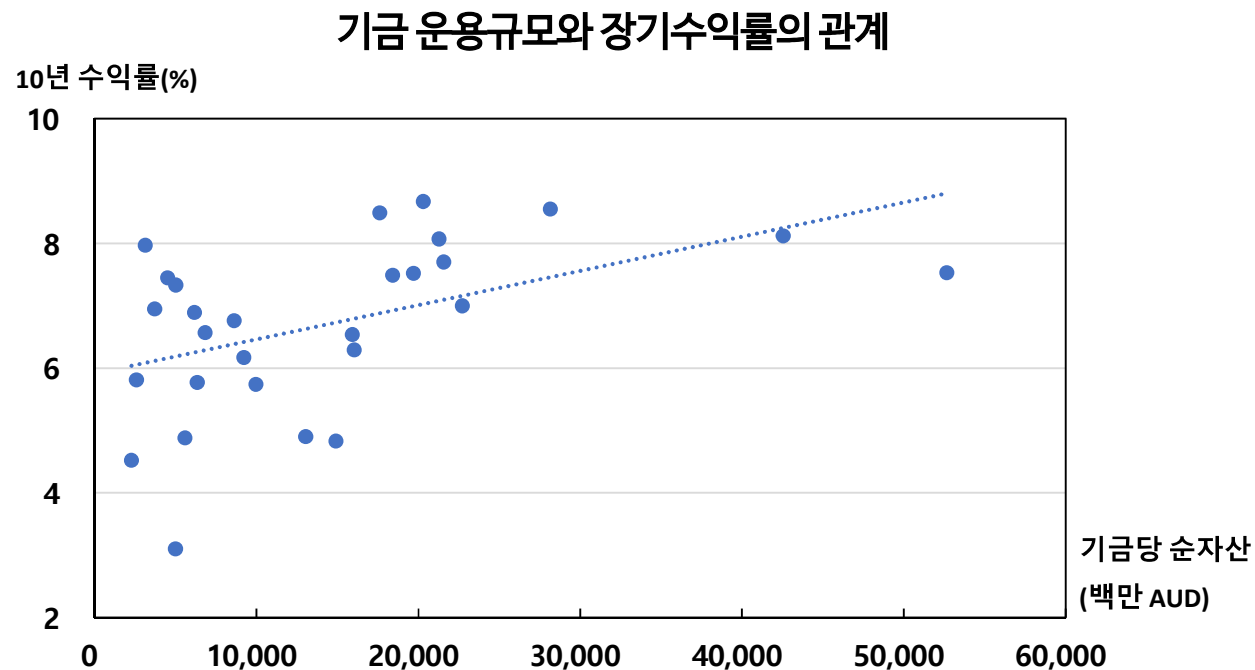
자료: APRA Data and Statistics



# 호주 Superannuation – 운용규모와 장기수익률 상관관계

## ❖ 유형별 통계 기반 상관관계 추정치 : 0.48

- 슈퍼애뉴에이션기금(Superannuation fund)과 자산운용사에 외주되는 하위 펀드에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남
- 펀드 규모 관련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대형 펀드의 규모의 비경제 효과는 하위 펀드의 대형화에서 발생하는 문제
  - 자산군 별 복수의 멀티매니저(multi manager) 체계로 하위 펀드의 대형화로 인한 규모의 비경제 효과 차단



자료: APRA Data and Statistics

## [이슈] 디폴트옵션(사전지정운용제도) 제도 개편

### ❖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디폴트옵션의 목적 및 역할

- 가입자 무관심으로 인한 원리금보장상품 편중을 완화하고 분산된 위험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

### ❖ 현행 Opt in 방식의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

- [원리금보장상품 배제] 100%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단일펀드 또는 포트폴리오는 적격상품 승인 배제
- [선택지 단순화] 위험등급별(안정형, 안정투자형, 중립투자형, 적극투자형)로 오직 1개의 사업자 대표상품만 제시

### ❖ 자산배분형펀드(TDF, TRF) 중심의 적격상품 제시

- TRF(Target Risk Fund) : 연금자산 운용에 특화된 중위험-중수익 구조의 장기투자형 자산배분(asset allocation) 펀드
- TDF는 단일펀드 또는 동일 빈티지 포트폴리오로만 설정하고 위험 적합형 포트폴리오 구성은 TRF(디딤펀드) 적극 활용
- 은퇴시점에 부합하는 TDF 상품 선택시 적합성 원칙 예외 적용

### ❖ 디폴트옵션제도의 구조적 개편

- 디폴트옵션제도의 핵심은 Opt out이라는 넛지(nudge)
-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 논의와 병행하여 Opt out 방식 디폴트옵션제도 재도입 추진

## [이슈] 국민연금공단(NPS) 운용 퇴직연금기금

### ❖ 효율적 집합운용DC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전제로 함

- 현행 사용자(기업)와 사업자(금융기관) 중심의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는 디폴트옵션 및 일임운용의 개념
- 집합운용DC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하며, 반대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임

### ❖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논의는 부적절

- [다층연금체계] 장기에 걸친 노후자산 축적에 수반되는 위험의 분산은 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모두에서 중요
- [운용 기제 몰이해] 운용수익률은 기금의 속성에 부합하는 자산배분과 그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의 장기적 운영 결과
  - ‘퇴직연금 수익률 2%, 국민연금 수익률 5%’ → 국민연금이 운용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5%가 된다?
- [운용조직]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자금을 추가 배분하는 방식은 불가능 → 별도의 위원회 및 기금운용본부 신설 필요
- [매기효과론]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은 그 자체로 부적절 → 공공의 민간 구축효과

### ❖ 강제적 제도 단일화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증대

- 제도 단일화의 주요 대상 사업장인 중소기업(50인 미만)의 DC형 가입 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퇴직연금기금 필요
- 정부 재정 보조가 수반되는 공공형 퇴직연금기금 시장에서 공공기관 간의 경쟁구도 조성이 합목적적 제도 개편 방향
-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 요인은 ‘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운용성과 관점의 건전한 경쟁 구도’ 임을 강조



**End of Presentation**